



WTO 가입 이후의 중국 건설 시장, 여전히 '만리장성'

- 정부조달협정은 미가입 상태, 공업용 건축 수요 크게 늘 듯 -

지난 11월 10일 '카타르 도하' 각료 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되었다.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와 함께 중국의 WTO 가입으로 2000년 현재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제반 경제 제도가 변화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중국 내부의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표출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등 중국 경제의 최근 변화는 우리 건설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OC 등 건설 수요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은 2008년 북경을

림픽 개최, 서부 대개발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세를 높이고 사회간접자본, 주택 등 건설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TO 가입으로 대외 무역의 증가,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개혁에 따른 경제 효율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는 향후 연평균 2~3%(World Bank), 또는 1~2%(ADB) 정도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2010년까지 7%의 고도 성장으로 중국 경제 규모를 2000년에 비해 2배로 증대시킨다는 중국 정부의 제10차 5개년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세계 7위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배가 넘는 중국이 2010년에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고도 성장을 위해서는 취약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SOC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철도 화물 적체율이 40%, 도로 비율이 인도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인구당 전력 소비는 말레이시아의 1/2 수준에 그치는 등(1997년 기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SOC 부문 등에서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2000년 현재 중국의 건설 투자액은 1,813억 달러로 GDP 대비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규모에 있어 세계 4위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고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시설, 철도, 도로 등 SOC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수요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출 장벽 매우 높아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건설 수요 증대가

우리 건설업체들의 중국 진출 확대에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건설 공사 입찰시 중국 특유의 인간관계 및 지역 연고 중시 등 비제도적인 면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 등 각종 제도적인 면에서도 장벽이 매우 높다. 건설업 면허에 있어서 투자시에만 단독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지 공사 수주를 위한 건설업 단독 면허는 주지 않고 있다.

또한, 합작법인 설립 후에도 중국 전역에서 공사 수주가 가능한 1급 면허는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사 입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공개, 지명 입찰, 수의 입찰이 실시되고 있으나 보통 내부 담합이 이루어져 외국 업체가 낙찰을 받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공사 규모가 큰 경우 또는 자국 업체의 기술로 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공사 부문으로 나누어 입찰에 붙임으로써 외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도 시공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화학 플랜트, 고급 기술 발전소 등 전문 분야를 제외한 인프라 부문의 시공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은 물론 시공 능력에서도 우리 기업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건설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국 진출은 부진을

뉴라운드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GATT 체제하에의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 협상이 1994년 종료되면서 WTO 체제가 새롭게 출범함과 아울러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GATT 체제를 대체한 WTO 체제는 기존의 GATT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서 체결된 협정이 전체 회원국을 구속, 개별 국가가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상품 교역 중심의 협상에서 벗어나 농산물 교역,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중요 의제로 다루기로 함으로써 각국 농민 등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1995년 설립된 WTO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세 차례의 각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협상 의제 등에 대한 주요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금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의 일정과 의제 등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이름의 뉴라운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 접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WTO 규범 개선, 환경, 투자·경쟁·무역 원활화·정부 조달 투명성, 개도국 우대 조항, 협상 조직 및 관리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환경 부문이 신규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제4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승인하였다. 협상 일정은 이들 9개 부문에 대해서 2002년부터 3년 간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3년 5차 각료회의에서 중간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다. 다만, 투자·경쟁·무역 원활화·정부 조달 투명성에 관한 협상은 2003년의 제5차 WTO 각료 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협상 형식을 결정한 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여 협상 시작이 연기되었다. 이러한 뉴라운드의 출범은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농업 부문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 등의 문제도 산적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배려로 이들 국가의 시장 개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투자·경쟁·무역 원활화·정부 조달 투명성에 관한 협상이 추후로 연기된 점이 아쉽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면치 못하였다. 중국에 처음 진출한 1991년 이후 2001년 5월 현재까지 삼성물산

중국이 WTO에는 가입했으나,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미룸으로써 입찰 제도 등 정부 조달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등 37개 업체가 42억 9,600만 달러를 수주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이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전의 부동산 투자 개발형 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 개발형 공사의 경우 시장 조사 부족에 따른 분양 및 자금 조달 애로와 우리 업체의 신인도 하락으로 IMF 외환 위기 이후에는 많은 업체들이 철수한 바 있다. 도급형의 경우는 16.9%인 2억 5,4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시공은 중국 업체들이 담당하였다.

향후 정책 투명성 제고 기대

중국의 WTO 가입으로 건설업 면허제도, 입찰 관행 등 각종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정책 결정에서의 투명성이



중국 상해고속도로

점진적이거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WTO 에는 가입을 하였으나, WTO 의 정부 조달 협정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에는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중국의 WTO 가입 논의에 있어 일부 회원국들이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GPA 에 가입할 것과 GPA 기준에 맞도록 정부의 제반 입찰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중국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입찰 제도 등 정부 조달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 공업용 건축 증가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는 중국의 해외 투자 자유화 조치로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업



중국 주택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 업체들이 축적한 다양한 노하우와 함께 '韓流'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고급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의 개방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법·제도 및 경제 정책의 투명성 제고, 무역 관련 규제 폐지(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 의무 비율 및 수출 이행 의무 비율 폐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부에서는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가 2005년에는 1998년의 2배 수준인 약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활성화는 제조업 부문의 공업용 건축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투자 유치 정책을 실시하여 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대중국 중화학공업 직접 투자의 활성화로 중화학 공업 부문의 공업용 건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의 경우 2001년 7월 말 현재 누계 기준으로 48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액 면에서 보면 2위를 차지하였으나 투자 규모는 경공업 중심의 소액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지난 해와 금년의 건당 평균 투자 규모가 44만

46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향후에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보다는 자본·기술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직접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기술력이 필요한 중화학공업 부문의 공장 건설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건설기업들의 수주 증가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입찰 등에서 중국 특유의 각종 장벽이 조만간 크게 완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부른 기대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고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출은 IMF 이전의 부동산 개발 투자시와 같은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건설 관련 인맥을 형성하는 한편 현지화와 유력 중국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 기업이나 화교권 업체들과의 공동 진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공업용 건축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동반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외국 업체와의 협력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부문의 진출에 있어서는 내부 장식, 공간 활용 등 다양한 노하우와 함께 '한류(韓流)'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으로 고급 주택의 이미지를 확실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 건설의 경우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 업체에 비해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윤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ykchoi@cerik.re.kr